

# 전국정당·중도개혁 노선 ‘시동’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의미 당 ‘투톱’ 수도권 출신...호남소의 우려도

수원 영통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을 이끌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에 오름으로써 손학규 대표를 포함, 당의 ‘투톱’이 모두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민주당이 ‘수도권 지도부’를 간판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선에서 중부권 탈환과 영남으로의 ‘동진(東進)’ 실험을 통해 ‘호남당’의 이미지를 털어내고 전국정당의 모습과 틀을 갖추어 대선 승리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통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해석의 연장선에서 한나라당

이 인천 출신의 황우여 의원을 원내 대표로 세운 것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민주당 내에서 정동영·전정배 최고위원 등 비주류를 중심으로 진보로의 ‘좌(左)클릭’ 압력이 높음에도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원에게 원내 지휘봉을 맡긴 것은 당의 전통적인 중도개혁 노선이 총·대선 승리의 키워드라는 밑바탕의 ‘중론’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는 중도개혁에 대한 당내 견고한 지지세를 동력으로 삼아 원내에서 진보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이 탈(脫)계파, 또는 당 통합의 완성을 보는 시각

도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최고위원의 당선을 위해 캠프 좌장으로 뛰었던 그는 4·27 재보선에서는 분당에 출마한 손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정 최고위원과 가깝지만 손 대표와의 관계도 원만하며, 톤큰 스타일 때문에 비주류와 관계도 무난할 것이라 전망도 적지 않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 때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패배에 깨끗하게 승복했다는 점에서 참여당을 비롯한 진보 소수 야당과의 통합 논의에 적임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당장, 5·6 개각에서 기용된 장관 인사청문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이 ‘김진표호(號)’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야권통합을 위해 강한 야성(野性) 발판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 다수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여기고 있는

한·미 FTA 비준 문제는 고도성장파 산업화의 숨은 주역으로서 현실적 공감각을 갖춘 그로서는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의 원내 사령탑 진입에 따른 수도권 투톱체제는 호남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향후 총선 공천은 물론 정책부분에서 무조건 호남부터 양보하라는 식의 수도권 위주의 당 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호남 소외 정책으로부터 이를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유효표 82표 중 36표를 획득, 강봉균(35표) 의원을 1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유선호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봉하마을 ‘화포천 습지길’ 개장  
호포천 습지길을 걷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향후 생태복원을 위해 결었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화포천 습지길’이 14일 개장했다. 시민 300여명이 연합뉴스

### 김진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 “6조 추경 내달 국회 처리...호남 인위적 물갈이 반대”

민주당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피해 지방재정을 살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민생예산 마련을 위해 6월 국회에서 6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과 15일 연이은 취임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추경을 통해 구제역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 따른 중소기업 및 축산농가 지원도 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 “미국에 다시 재협상을 하자고 설득해 현재 무너진 이익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이 ‘그쯤하면 됐다’는 게 여분화될 때 완곡한 관용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재협상) 방법은 사이드레터(양해각서)나 부속의 정서 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적쇄신 등 당 혁신 방안과 관

련, “우리 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줄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 영입할 것”이라며 “앞으로 4당 통합 과정에서 필요하면 양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남권 의원 공천 배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당이란 운명공동체는 그에 속한 정치적 동지들이 같은 이념과 가치체계 아래 서로 뭉쳐 같이 가는 것 아니냐”면서 “인위적 물갈이는 하지하책(下之策)으로,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친노인사 30명안팎 총선출마 준비

### 김경수·최인호·김인화·정찬용씨 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총선을 향한 친노 진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5일 민주당과 친노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총선을 준비 중인 친노 인사는 30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노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읍에서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내 준 지역의 탈환을 위해 재보선 당시 야권 단일후보로 거론되다 불출마한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의 출마 가능성이

이 제기된다.

부산에선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사하갑, 서구에서 각각 뛰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김인회 변호사도 고향인 부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주변의 권유로 서울 중랑과 동대문을 놓고 고민 중이며,

윤승용 전 청와대 대변인(윤인 기흥),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민주당 황희 부대변인(안산 단원읍) 등도 지역구 터득기에 들어갔다.

친노계인 이화영 전 의원은 고향인 강원 동해·삼척 출마로 재기에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종민 충남 정부부지사, 소문상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각각 충남 논산·계룡 금산, 충북 제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에선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백만 대변인(서울 도봉),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광주) 등이 총선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7·28 재보선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한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은평을 재도전 여부를 고심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당대표 후보 벌써 물밑 움직임

### 김무성·홍진표 등 10여명 거론

7·4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나설 예비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5일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10여명이다.

중진그룹에서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홍준표 전 최고위원이 거명되고 있다. 4·27 재보선 일원이었던 박근을 일단 4·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내달부터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장과는 ‘세대 교체’를 내세워 당권을 잡겠다는 의지다. 내부의 미니 경선에서 후보를 단일화한 뒤 당권도 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4선의 남경필 의원과 재선의 정두언·나경원 의원이 간판주자로 거론된다. 다만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44명의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가 이들을 단일대오로 지원할지, 나아가 친박계까지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처럼 본격화할 지는 미지수다.

원희룡 전 사무총장의 출마설도 거

론되고 있다. ‘원조 소장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보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므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다만 소장파의 젊은대표론에 맞설수 있는 카드는 점에서 친이계가 그를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낙마했다가 재보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김태호 의원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고, 중립 성향의 권영세 의원도 출마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에서는 소장파와의 연대가 어려워질 경우 유승민·이성현 의원 등을 자체 후보로 출마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봉하마을 도보 순례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 광주에서 봉하마을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5박 6일의 남부지방 민주 성지 순례에 나서면서 권토중래를 꿈꾸다.

정 최고위원은 오는 19일 광주에서 출발해 옛 전남도청, 남원의 김주열 열사 묘소와 경남 하동 화개장터, 경남대의 부마항쟁 기념석, 부

## 정세균 민주당 최고 ‘남부민주벨트론’...권토중래 꿈꾸나

산민주공원 등을 거쳐 22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에 도착할 예정이다.

성지 순례에는 정 최고위원 측 심크럽크인 ‘국민시대’ 관계자들을 비롯해 그의 지지자들이 중간 중간 합류하기로 했다. 도보 행진을 마친 뒤 23일에는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번 순례는 그가 지난 12일 부

담내에서는 이번 행진을 야권의 대선 예비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선캠프인 국민시대를 띄운 그의 세 확산 시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호남 출신이면서 친노(親盧)와 가까운 그가 이던 장점을 활용, 영남으로 외연 넓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 식당용 증고품

- 매매전문 -

냉장고 A/S전문 주방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환영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증고매장

직통 011-9430-1698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

###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금액: 500만원~8,000만원

▶ 금리: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금액: 500만원~5,000만원

▶ 금리: 년 9%~

▶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계:금융권이자율:최저년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년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년33%~44%(연체금리 44%)

### 법원 경매

법원경매 법률상담 ☎226-2785 h.p 010-5879-8300

경매주택대차 상담, 권리신고 배당요구, 경매고충해결 소유권이전, 명도소송, 인도명령, 건물철거, 유체동산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신청, 일반임대차

【추천경매 물건】

서구 화정동 상가주택(총4호) 대지209㎡ 건물347㎡ 감정가3억1천1천 최저가2억2천	달양군 금성면 전원주택부지 면적 4556㎡ 감정가1억6천4백 최저가1억1천5백
달양군 대전면 주택,공장 대지1260㎡ 건물308㎡ 감정가2억4천 최저가1억7천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상가 면적552㎡(임대료1천만원) 감정가9억1천4백 최저가6억4천
화순군 도곡면 숙박시설 대1674㎡ 건물1548㎡ 감정가 8억1천 최저가 3억6천3백	상무지구 금호쌍용아파트 7층 면적 165㎡ 감정가2억7천 최저가1억8천9백
서구 광천동 이편한세상아파트4층 142㎡ 감정가3억5천 최저가2억4천5백	서구 벽진동 주택,창고 대지473㎡ 건191㎡ (투자가치) 감정가1억4천2백 최저가9천9백
광산구 수완지구 신안실크밸리6층 105㎡ 감정가1억8천1백 최저가1억6천	서구 마북동 대지 (법정지상권) 대지 175㎡ 8미터도로점 감정가1억6천 최저가1억1천1백
광산구 수완지구 원진에버빌 5층 143㎡ 감정가2억9천 최저가2억3백	광산구 신창동 주택,식당 대지368㎡ 건물166㎡ 감정가2억9천 최저가1억4천6백
북구 오치동 금호타운 7층 면적 105㎡ 매대가 1억2천	동구 지산동(조대후원) 다가구주택 대지231㎡ 건물321㎡ 매대가 3억1천

이외 광주,전남,북에서 진행중인 모든경매물건 의뢰 가능합니다!

명도대행·명도소송·강제집행 NO.1

변호사 김길수법률사무소

☎(062)226-2785 H.P 010-5879-8300